

##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선거연합

박 영 환\*

### •요 약•

본 논문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의 선거연합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정치의 본질이 집단 간 정체성의 경쟁에 기초한다면 정당 간 세경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 가운데서 지역, 이념, 세대, 성별은 정당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로서 이들의 연합을 통해 정당은 지지자들을 동원한다. 2022년 대통령선거 유권자 설문조사와 지상파 방송 출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본 논문은 2022년 대선에서 정당 선거연합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정당의 선거연합이 오늘날 정치 양극화와 민주주의 역진 현상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토론한다.

주제어 : 정당 선거연합, 집단정체성, 세 경쟁, 동원, 20대 대선

###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한국 정치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당의 선거연합<sup>1)</sup>이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치의 선거에서 정당 선거연합의 요소로 알려진 지역, 이념, 세대가 어떻게 지지블록<sup>2)</sup>을 형성하여 20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것의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던 이념과 지역, 세대의 3자의 중첩성이 구체적으로 정당과 어떻게 지지블록을 구성하여 선거연합을 이루

\* 영남대학교

- 1) 선거연합은 선거경쟁에서 지지획득을 위해 정당을 중심으로 여러 사회구성 세력들이 서로 뭉쳐 하나의 지지세력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 2) 지지블록은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지지세력 요소들의 결합양태를 의미한다.

는지를 20대 대선을 통해 경험적으로 밝힘으로써 선행연구의 이론을 정당화하고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그동안 언론에서는 일찍부터 주장하였지만, 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성별의 세 대결에 주목하면서 2030 세대의 성별이 각 선거연합에 어떻게 추가적으로 정렬되어 20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이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화두로 떠오른 성 대결이 선거 결과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새로운 이론 구축과 함께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처음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독창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 속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진영의 치열한 결집을 통해 유례없는 초접전을 펼친 결과 0.73%포인트라는 미세한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0.73%포인트의 차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적은 역대 최소 표 차이로 선거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었는지를 방증해준다. 투표율도 2000년 이후 치른 5번의 대선 중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제19대 대선의 투표율(77.2%)에 버금가는 77.1%를 기록하였다.

양당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 대선 전까지 총 12회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갤럽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동물 내지는 1%포인트 내외의 초접전을 7회씩이나 기록했다.<sup>3)</sup> 양당의 후보가 얼마나 팽팽한 백중지세의 대결을 펼쳤는지를 알 수 있다. 3월 9일 투표 종료 후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 두 후보의 예상 득표율은 이재명 47.8%, 윤석열 48.4%로 불과 0.6%포인트밖에 나지 않았고 새벽까지 엇치락뒤치락 숨막히는 대결구도를 이어나갔다. 무엇이 두 후보 간 양강구도를 형성하게 만들고 초박빙의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최근 한국 선거가 양대 진영의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지역을 중심으로 이념, 세대, 성별을 정렬시켜 하나의 지지블록을 형성하여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선거구도<sup>4)</sup>는 각 진영의 지지세력을 설득 및 동원하고, 선거 세몰이를 유지 및 강화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논의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한국정치학회·한국정당학회·한국선거학회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의식을 조사한 설문자료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양대 정당의 선거연합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77> (검색일: 2023.02.15).

4) 선거구도는 선거경쟁의 본질, 양상, 성격이 선거에서 짜임새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선거구도 하에 정당을 중심으로 지역, 이념, 세대, 성별의 요인들이 하나의 선거연합을 이루어 세 대결을 벌이는 이론적 내용을 소개한다. III장에서는 2022년 20대 대선에서 선거구도와 선거 이슈가 어떻게 정당 선거연합의 강도와 밀도에 조절적 작용을 하는지, 또 정당을 주축으로 선거연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렬되었는지를 논의한다. IV장에서는 통계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V장에서는 연구내용의 요약과 정당의 선거연합이 한국 정치에 갖는 함의를 서술한다.

## II. 한국 선거에서 정당 선거연합의 구성

정당의 지지는 한 사회의 균열구조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런 정당 간의 경쟁은 민주주의의 작동을 이해하는 데 본질적 요소라 할 수 있다.<sup>5)</sup> 한국 선거에서는 정당을 중심축으로 하여 지역-이념-세대의 정치세력 요소의 조합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선거연합이 구축되어 왔다.<sup>6)</sup> 여기에다 2021년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성별이 정당 선거연합의 한 축으로 새로이 추가되고 있는 양상이다.<sup>7)</sup> 정당과 지역의 선거연합은 한국의 정치현실에서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지지블록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민주화 이후 지역을 유권자의 투표행태의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정당의 지지기반으로 지역을 상수로 고려하고 있다.<sup>8)</sup> 특히 지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구조 위에 지역민의 정체성이 자리잡으면서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정당이나 정치인이 이를 동원화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완전한 균열로 정당의 장기적인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sup>9)</sup>

5) Schattschneider, Eric Elmer, *Party Government*,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47.

6) 선거에서 정당을 중심으로 한 지지세력의 블록화, 즉 선거연합에 대한 논의는 다음 신문 기사를 참조할 것. 고정애, “허니문 거의 없을 수도...더더욱 통합 노력해야”,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4610#home> (검색일: 2022.02.15).

7) 성별이 정당 선거연합에 새로 추가된 논의 역시 고정애, 2022. 참고할 것.

8) 김만흠,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28권 제2호, 1995; 최장집, 『한국민주주의 이론』,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황태연, “한국의 지역패권적 사회구조와 지역혁명의 논리”, 『정치비평』, 창간호, 1996; 최영진, 『한국 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9; 강원택, “가치와 이념 갈등”, 『한국의 사회동향 2009』, 통계개발원, 2009; 이갑윤·박경미, “지역발전과 지역적 정당투표”, 이갑윤·이현우 편, 『한국의 정치균열 구조: 지역, 계층, 세대 및 이념』,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14; 윤광일, “지역주의의 변화: 1988년, 2003년 및 2016년 조사결과 비교”, 『의정연구』, 제23권 제1호, 2017.

9) 윤광일, “균열구조와 19대 대선”,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1호, 2018.

이념은 정치적 세계관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개인의 정치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념은 정치적 대상에 고유의 정치적 세계관을 투영하면서 개인적 선호를 형성시킨다. 이념이 유권자의 정당지지에 작용을 한다는 것은 서구의 정치학자들에 의해 잘 논증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유권자 자신과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당을 선택한다는 다운스(Anthony Downs)의 주장이나,<sup>10)</sup> 개인은 진보-보수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기반하여 이슈에 대한 정치적 의견형성,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정치적 선택을 한다는 클링그만(Hans-Dieter Klingemann)의 주장<sup>11)</sup> 등이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한국의 연구에서도 각종 선거에서 이념의 중요 역할을 지지하고 있는데 2002년 대통령선거,<sup>12)</sup> 2004년 국회의원선거,<sup>13)</sup> 2010년 지방선거<sup>14)</sup>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후 한국에서 이념이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주요인 중 하나로 간주되고 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sup>15)</sup> 정치적 태도와 행동의 기반으로 이념을 생각해볼 때, 이념과 정당의 지지블록 결합은 자연스런 것이다.

그런데 이념과 관련하여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 이념은 앞서 언급한 지역과 중첩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sup>16)17)</sup>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념은 신념체계로서<sup>18)</sup> 정치적 현상이나 대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해석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에 따라, 또는 개인의 특성(연령, 성별)에 따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 따라 정치적 현상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 다수의 저작에서 확인된 이념과 지역의

10) Downs,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1957.

11) Klingemann, Hans-Dieter, "Measuring Ideological Conceptualisations", In Samuel H. Barnes and Max Kaase (eds.),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1979.

12) 강원택, 2009.

13) 최준영·조진만,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제3호, 2005.

14) 이현우·이지호·서복경·남봉우·성홍식, 『표심의 역습 빈부, 세대, 지역, 이념을 통해 새로 그리는 유권자 지도』, 서울: 책담, 2016.

15) 이갑윤·이현우,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1호, 2008; 문우진, "지역주의와 이념성향: 17대 총선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1제호, 2009; 김성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의 영향: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의정연구』, 제23권 제2호, 2017.

16) 백준기·조정관·조성대,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그리고 2002년 대통령선거", 『국가전략』, 제9권 제4호, 2003; 강원택, 2009; 문우진, 2009; 문우진, "한국 선거경쟁에 있어서 이념 갈등의 지속과 변화: 15대 대선 이후 통합자료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제3호, 2016; 지병근, "호남 유권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 및 이념적 특성",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제1호, 2014; 이현우·이지호·서복경·남봉우·성홍식, 2016.

17) 뒤에서 언급할 세대, 성별과 이념도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18) Converse, Philip E.,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Press, 1964.

중첩성의 구체적 양상은 영남(또는 대구·경북) 지역은 더 보수적이고, 호남 지역은 더 진보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정당을 축으로 한 선거연합으로 배열하면 민주당-호남-진보, 국민의힘-영남-보수로 성립된다.

세대 또한 정당을 주축으로 한 선거연합의 세력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된다. 세대의 구성원들은 “특정 방식의 사고와 경험, 그리고 특성의 역사적 행동 유형을 갖는 성향”이 있다.<sup>19)</sup> 그러므로 각 세대는 서로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사회 질서나 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런 까닭에 만하임은 세대를 개인의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sup>20)</sup> 한국 정치에서 세대가 처음으로 주목을 끈 것은 3김 퇴장 이후 치러진 2002년 대선 때였다.<sup>21)</sup> 당시 지역 변수의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사이 이념 변수와 함께 세대 변수의 요인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세대 요인의 정치학적 연구는 세대 효과에 주목한다. 세대 효과란 특정 세대가 사회화 단계에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사한 정치적 정향을 형성하고 이것이 일생에 걸쳐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sup>22)23)</sup> 예를 들면, 한국 선거연구에서 주목을 받은 386세대는 독특한 특성을 공유한 세대로 이 특성이 그들의 정치행태를 지배하였다. 1960년대 출생한 이 세대는 청년기에 겪은 민주화 투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세대 공통의 정치정향을 형성하여 1997년 정권교체, 2002년 진보정권 재창출에 기여하였다. 미국에서도 뉴딜연합의 세대는 1930년대 대공황 직후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으로 혜택을 입은 세대들로서 그들의 민주당지지 성향은 유명하다.

세대 간 구별되는 정치성향에 주목하면서 서로 달리하는 정당의 선거연합을 설명하고자 할 때, 이념과 세대의 결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386세대는 반권위주의 투쟁으로 다른 어떤 세대보다 진보적 성향을 띤다. 또 유례없는 경제성장과 물질적

19) Mannheim, Karl,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Paul Kec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2, p.291.

20) Mannheim, 1952

21) 노환희·송정민·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 정당학회보』, 제12권 제1호, 2013; 강원택·성예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1호, 2018.

22) 노환희·송정민·강원택, 2013; 이현우·이정진, “세대별 이념갈등의 이질성: 세대 내 이슈태도 분석을 중심으로”, 이갑윤·이현우 편, 『한국의 정치균열 구조: 지역, 계층, 세대 및 이념』,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14; 이현우·이지호·서복경·남봉우·성홍식, 2016; 강원택·성예진, 2018.

23) 개념상으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연령 효과란 나이가 들면서 현상유지 욕구가 커지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행태에서 고연령층일수록 보수 정당이나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본 논문은 연령대 차이에서 오는 세대 간 정치적 행태의 이질성에 초점을 맞추므로 연령 효과나 세대 효과라는 용어 사용의 개념적 차이에 주목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세대를 연령(대)와 개념적으로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

풍요 이후 후기 산업사회가 도래하면서 탈물질주의 가치를 우선하는 젊은층의 성향<sup>24)</sup> 역시 이념과 세대의 중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이들은 환경, 삶의 질, 문화를 중시하면서 진보적 성향을 드러낸다. 한편 한국전쟁을 경험한 6·25세대는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가 어느 세대보다 강해서<sup>25)</sup> 선거에서 보수적 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념적 지향이 다르고 정치적 지지가 다른 선거연합에서 특정 세대와 이념적 성향의 결합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낼 수 있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는 40대, 50대의 진보성이 도드라진다. 40대는 청소년기에 전교조 영향을 받았고 시장의 효율성에 기반한 신자유주의 공세를 경험하였고 또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취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20대 때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경험하였고, 그 뒤 이명박 정권 및 박근혜 정권 때는 광우병 촛불 집회, 탄핵 촛불집회를 경험하면서 40대는 진보적 가치를 우선하는 가장 적극적인 세대가 되었다. 50대는 대학생 시절 1987년 민주화 시기 또는 그 직후의 세대로 권위주의 반대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공유하면서 진보적 시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40대와 50대는 민주당의 선거연합의 요소로,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의 선거연합의 요소로 간주하고 20대 대선에서의 선거결과를 분석한다.

한편 전통적인 정당의 선거연합에 최근 추가된 정치세력의 요소로 본 논문은 성별, 특히 20대, 30대의 성별에 주목한다. 지난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20대, 30대 성별은 기존의 전통적 정당 선거연합에 새로이 추가되는 정치세력 요소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젠더이슈 점화 및 성범죄 무고죄 강화 발언을 계기로 지난 2021년 보궐선거에서부터 젊은층은 성별에 따라 정당의 지지층이 명확히 갈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른바 성 대결의 지지성향 대립으로 2030세대의 여성은 진보성향, 2030세대의 남성은 보수성향을 띠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표 1>의 2021년 보궐선거 결과는 이를 잘 뒷받침 해준다.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 의하면, 20대 이하 남성 72.5%, 30대 남성 63.8%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20대 이하 여성 44%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더 많이 선택하였고, 30대 여성은 박영선 43.7%, 오세훈 50.6%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가 6.9%포인트 더 많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를 보면 20대 이하 및 30대 남성은 각각 63%, 54.6%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더 많이 찍었으며, 20대 이하 및 30대 여성은 각각 50.3%, 48.6%로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24) Inglehart, Ronald,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e, Economics,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25) 이현우·이지호·서복경·남봉우·성홍식, 2016.

더 많이 찍었다. 이런 사실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민주당-2030여성과 국민의힘-2030남성이라는 선거연합을 제시한다.

이상으로 최근 한국 선거에서 볼 수 있는 양대 정당의 세몰이 경쟁에서 각 정당을 주축으로 한 선거연합의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세계관으로서의 이념적 역할을 생각할 때, 이념을 매개로 한 지역, 세대의 3자 간 중첩적 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 전술한 바대로 지역과 이념의 중첩성, 그리고 이념과 세대의 중첩성을 놓고 볼 때, 이념을 매개로 지역, 세대가 동시에 중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역-이념-세대의 중첩성을 논증하고 있다.<sup>26)</sup> 호남-진보-젊은층, 영남-보수-노장층이 그 예이다. 3자의 중첩적 관계를 정당을 중심으로 정렬시키면 민주당-호남-진보-젊은층, 국민의힘-영남-보수-노장층이라는 한국 정치에서 전형적인 정당의 선거연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2030 세대의 성별 후보선택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오세훈	김영춘	박형준
20대 이하	남성	22.2%	72.5%	29.7%	63.0%
	여성	44.0%	40.9%	50.3%	41.3%
30대	남성	32.6%	63.8%	39.2%	54.6%
	여성	43.7%	50.6%	48.6%	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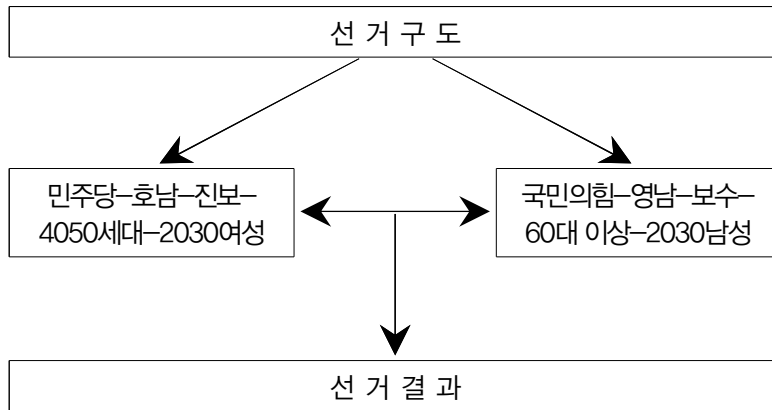
※ 자료: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 Ⅲ. 2022년 대선에서 선거구도와 정당 선거연합의 동원

정당의 선거연합은 선거구도에 의해 활성화된다. 선거에서 구도는 선거의 성격을 결정 짓는 구조적 요인이다. 특정의 선거구도가 형성되면 한국 선거에서는 정당을 중심축으로 하여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선거연합이 격렬한 세 규합과 동원, 참여, 지지 경쟁을 펼친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생산되는 이슈가 선거연합의 강도와 밀도에 조절작용을 한다.

26) 지병근, “민주화 이후 지역감정의 변화와 원인”, 『한국정당학회보』, 제14권 제1호, 2015; 문우진, “지역주의 투표의 특성과 변화: 이론적 쟁점과 경험분석”, 『의정연구』, 제23권 제1호, 2017.

이런 논의에 기반하여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분석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분석들을 통해 선거구도가 선거연합의 동원과 지지에 가하는 제약과, 각 지지세력들로 정렬된 선거연합의 경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분석틀

한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생산되는 이슈도 경우에 따라 선거의 양상이나 결과에 작용할 수 있다. 이슈는 정당의 선거연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도층이나 또는 느슨한 지지층을 연대, 또는 해체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번 20대 대선의 선거구도는 무엇인가? 바로 야당의 정권교체론과 여당의 정치교체론이다. 윤석열 후보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된 데에는 그가 정권교체의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에 맞서 대항한 투사적 이미지는 야당의 대선후보로 손색이 없었다. 윤석열 후보는 다른 선거전략도 필요없이 정권교체라는 프레임 하나로 적절하고 유효한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내로남불, 위선과 거짓, 무능, 불공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권교체를 하자고 역설하였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연속성을 위해 여당 후보 당선이라는 정권유지론과 정치교체를 통해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 국민통합을 완성 하자는 더 나은 정치교체론을 들고 나왔다.

이와 같은 양강 후보의 선거구도 경쟁은 20대 대선의 성격을 규정짓는 역할을 한다. 〈표 2〉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20대 대선은 정권교체론과 정권유지론이 충돌하는 선거구도의 싸움이었고, 정권교체론에 동의하는 비율이 정권유지론에 동의하는 비율보다 약



14%포인트 더 많은 점에 비추어 정권교체론이 우세한 선거구도였다. 그러나 각 선거구도에 호응하는 유권자의 응답 비율을 보게 되면, 정권교체론에 찬성하는 투표자들의 86%는 윤석열 후보를, 그리고 정권유지론을 지지하는 투표자들의 66%는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 이는 성격을 달리하는 2개의 선거구도가 각 정당의 선거연합의 정치세력 요소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2022년 대선 결과도 미세한 득표율의 차이로 두 후보의 승부가 갈라졌다.

〈표 2〉 20대 대선에서 선거구도와 후보선택

	빈도율	이재명	윤석열
정권유지론	35.0%	65.5%	12.1%
정권교체론	48.7%	6.5%	85.5%

※ 자료: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

한편 이번 20대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는 대선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단일화 이슈라 할 수 있다. 특히 중도층 표심의 상징인 안철수 후보의 사퇴는 안철수 지지자들의 투표 방향과 아울러 기존의 양대 정당의 선거연합 동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은 한국정치학회·한국정당학회·한국선거학회가 2022년 4월 4~14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할당 방식으로 1,046명을 표본추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정치의식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다. 설문 문항 중 야권 후보단일화가 투표참여 의욕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는 항목이 있다. 이를 빈도분석한 결과가 〈표 3〉에 보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야권 후보단일화는 투표참여 의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투표참여 의욕을 강화시켰다는 응답이 33%, 저하시켰다는 응답이 17%, 모름이라는 응답이 3%로 가장 낮았다. 그런데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야권단일화가 투표참여 의욕을 강화시켰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온 지역 순서대로 살펴보면, 전남 69.4%, 광주 50.0%, 대전 48.3% 순이다. 광주, 전남은 민주당 선거연합의 대표적인 지역적 기반으로 이 지역에서 투표참여 의욕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사실은 야권단일화에 위기의식을 느낀 여권 지지층 지역민들의 결집효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야권단일화가 투표참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76.1%), 경남(62.5%), 경북(61.1%) 등 영남 지역들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민의힘 선거연합의 지역적 기반인 영남 지역민들에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마음속에 이미 굳힌 상태에서 야권단일화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선거 막판에 등장한 야권단일화 이슈는 양대 정당의 선거연합의 지역적 기반에 동원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3〉 20대 대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의 투표참여 의욕

(단위: %)

	강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저하	모름
전국 <sup>㉞</sup>	32.5	47.3	17.3	2.8
서울	32.4	46.2	18.6	2.8
인천	36.1	47.5	16.4	0
경기	31.5	45.6	20.1	2.8
강원	9.7	67.7	6.5	16.1
대전	48.3	34.5	17.2	0
충북	28.1	50.0	18.8	3.1
충남	31.9	40.4	27.7	0
광주	50.0	35.7	14.3	0
전북	25.7	31.4	42.9	0
전남	69.4	22.2	8.3	0
대구	10.9	76.1	10.9	2.2
경북	25.9	61.1	9.3	3.7
부산	44.9	43.5	10.1	1.5
울산	47.6	33.3	14.3	4.8
경남	18.8	62.5	12.5	6.3

※ 자료: 한국정치학회·한국정당학회·한국선거학회 설문조사

n 합계: 1,046명

선거구도와 야권단일화 이슈를 통해 20대 대선에서 각 정당의 선거연합 동원과 지지에 관한 대략적인 모습을 추론해보았다. 이제 20대 대선에서 양대 정당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정치세력의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열되고 정렬되었는지를 전국적 관점에서 살펴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선거에서 볼 수 있는 정당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정치세력의 요

소는 정당을 주축으로 하여 정렬되는 지역, 이념, 세대, 성별이다. 앞서 논의한 대로 민주당의 지지기반은 호남, 진보, 4050세대, 2030여성이다. 각각 지역, 이념, 세대, 성별을 대표하며 민주당과 정렬하여 선거 때마다 강력한 선거연합을 형성한다. 한편 국민의힘의 지지블록은 지역적으로 영남, 이념적으로 보수, 세대별로 60대 이상, 성별로 2030남성이라 할 수 있다. 이번 20대 대선을 통해 이를 확인해보자. <표 4>의 지역별 득표율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호남이며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북, 전남에서 각각 84.8%, 83.0%, 86.1%를 차지하였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영남으로 윤석열 후보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각각 75.1%, 72.8%, 58.3%, 54.4%, 58.2%를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호남은 민주당의 지역기반, 영남은 국민의힘의 지역기반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정당 선거연합의 요소로 이념은 20대 대선에서 어떻게 정당의 지지블록을 형성하는가? <표 5>의 이념별 후보선택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진보 유권자의 80%는 이재명 후보, 보수 유권자의 76%는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보, 보수의 상반되는 이념적 구성이 양대 정당의 지지기반으로 굳건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대와 정당 선거연합의 정렬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에 따르면 남성 40대 61%, 여성 40대 60%, 그리고 남성 50대 55%, 여성 50대 50.1% 모두 과반 이상 비율로 이재명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고, 60대 이상의 남성, 여성 각각 67.4%, 66.8%가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대 대선에서 성별이 각 정당의 선거연합에 어떻게 배열되는지 살펴보자.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젠더문제를 대선에서 이슈화시켰다. <표 6>에 따르면, 2030 세대의 성별의 표심이 극명히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대 이하 및 30대 남성은 각각 58.7%, 52.8%로 윤석열 후보를 더 지지하였고,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각각 58%, 49.7%로 이재명 후보를 더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별, 특히 젊은 세대의 남녀 유권자는 최근 한국 정치에서 정당 선거연합의 새로운 구성요소로 추가되고 있다. 20대 대선에서 2030 세대의 성별이 기존의 정당 지지블록에 정렬되면서 이제 한국 정치 지형은 정당을 기반으로 지역-이념-세대-성별의 서로 다른 2개의 정치세력이 연합을 이루면서 극명히 대조되는 세 대결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별 득표율

	이재명	윤석열
서울	45.7%	50.6%
인천	48.9%	47.1%
경기	50.9%	45.6%
강원	41.7%	54.2%
대전	46.6%	49.7%
세종	51.9%	44.1%
충북	45.1%	50.7%
충남	45.0%	51.1%
광주	84.8%	12.7%
전북	83.0%	14.4%
전남	86.1%	11.4%
대구	21.6%	75.1%
경북	23.8%	72.8%
부산	38.2%	58.3%
울산	40.8%	54.4%
경남	37.4%	58.2%
제주	52.6%	42.7%
전국	47.8%	48.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 5〉 전국적 수준의 이념별 후보선택

	진보	중도	보수
이재명	80%	48%	24%
윤석열	20%	52%	76%
합계 <sup>㉠</sup>	100%	100%	100%

※ 자료: 한국정치학회·한국정당학회·한국선거학회 설문조사  
n 합계: 922명

〈표 6〉 제20대 대통령선거 출구조사: 성별, 세대별 후보선택

(단위: %)

		이재명	윤석열
전체		47.8	48.4
남성		46.5	50.1
	20대 이하	36.3	58.7
	30대	42.6	52.8
	40대	61.0	35.2
	50대	55.0	41.8
	60대 이상	30.2	67.4
여성		49.1	46.6
	20대 이하	58.0	33.8
	30대	49.7	43.8
	40대	60.0	35.6
	50대	50.1	45.8
	60대 이상	31.3	66.8

※ 자료: 지상과 방송 3사 출구조사

#### IV.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정당 선거연합의 결과

이제 본격적으로 양대 정당의 선거연합이 2022년 대통령선거 결과에 어떤 독립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정당 선거연합의 각 정치세력 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념을 매개로 지역과 이념의 결합, 이념과 세대의 결합, 이념과 성별의 결합 등 이념과 각 요소의 중첩적 연합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지역-이념-세대, 지역-이념-성별의 3자적 중첩적 연합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분석한다. 각 회귀분석 모델에서 종속변수는 후보선택으로 이원변수로 코딩된다(후보선택: 1=윤석열, 0=이재명). 종속변수가 이원변수이므로 로짓회귀분석이 사용된다. 그리고 각 회귀분석 모델에서 독립변수는 양대 정당의 선거연합의 정치세력 요소, 즉 지역(호남, 영남), 이념(진보, 보수), 세대(4050세대, 60대 이상), 성별(2030여성, 2030남성)이다. 여기에다 이념을 매개로 나머지 요소의 상호작용 변수들(지역×이념, 이념×세대, 이념×성별, 지역×이념×세대, 지역×

이념×성별)이 독립변수에 추가된다. 각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은 <표 8>에 요약되어 있다.

<표 7>은 정당의 선거연합을 이루는 각 정치세력의 요소가 후보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먼저 모델1은 독립변수는 생략된 채 통제변수의 영향력을 테스트한 회귀분석 모델이다. 모델1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만한 사항은 정당의 선거연합의 활성화에 작용을 하는 선거구도와 이슈의 영향력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것은 이번 20대 대선의 선거구도가 정권교체론보다 정권심판론이 더 우세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20대 대선의 선거구도는 여당보다 야당의 선거연합의 참여와 지지를 더 활성화시켰다고 판단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0대 대선의 결과가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정치 현실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거운동 기간 중 생산되는 이슈는 정당 선거연합의 강도와 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모델1의 통계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단일화가 투표의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야당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더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련 변수들이 통제된 회귀분석 모델에서 야권단일화 이슈의 영향력은 특정 정당 선거연합의 결집효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했고, 대신 선거운동 기간에 형성된 선거구도가 각 정당 지지블록의 정치세력 요소를 정렬시켜왔고 선거 막판에 터진 이슈는 이미 정렬된 선거연합의 밀도나 강도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델1에서 기타 변수들의 결과를 보면, 남성일수록, 고연령층일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일수록 윤석열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발견되었다. 또 후보선택 시 고려요인이 정책/공약이거나 소속정당인 경우, 윤석열 후보를 더 지지한다는 것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정당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각 정치세력 요소의 영향력을 분석한 모델2의 결과는 대체로 이론적 논의에 부합하는 결과들로 나타났다. 로짓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 선거에서 정당 선거연합을 구성하는 요소로 지역, 이념, 세대, 성별이 이번 대선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적 수준에서 호남은 민주당 지지기반으로서, 그리고 영남은 국민의힘 지지기반으로서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다. 또 진보와 보수의 이념성 역시 이론적 방향대로(진보-민주당, 보수-국민의힘) 각 정당의 지지블록 형성에 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60대 이상 유권자의 보수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으나 4050세대의 진보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민주당 선거연합의 동원과 지지 실패,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를 설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된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의 선거구도가 정권안정론(또는 정치교체론)보다 정권심판론에 힘이 더 쏠리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선거연합의 주력 요소인 4050세대의 참여와 지지세는 꺾였고, 더욱이 선거기간 중 이 세대의 결집을 유발할만한 결정적인 이슈도 없었기에 민주당 선거연합의 강도는 국민의힘 선거연합보다 약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보궐선거에서 불기 시작한 젊은층의 성 대결의 정치성향 역시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확인되었는데, 2030세대의 남성들의 보수성은 보수정당 후보의 지지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2030세대의 여성 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로 회귀분석모델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면 이념을 매개로 다른 정치세력의 요소의 중층적 결합은 이번 20대 대선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였는가? 앞서 논의한 바대로, 이념은 유권자의 정치적 세계관의 기초를 이루는 신념체계로 개인의 특성, 지역에 따라 정치적 대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해석틀로 작용을 한다. <표 9>에서 모델3은 이념을 매개로 하여 다른 정치세력의 요소(즉, 지역, 세대, 성별)와 결합된 상호작용 변수의 영향력을 테스트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론적 논의가 기대한 방향대로, 민주당의 선거연합은 이념을 매개로 하여 호남과 진보, 진보와 4050세대, 진보와 2030여성의 민주당 후보 지지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정반대의 편에서 국민의힘 선거연합 역시 보수적 이념을 매개로 하여 영남과 보수, 보수와 60대 이상, 보수와 2030남성의 국민의힘 후보 지지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이념의 중첩성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이것의 의미는 이념의 중첩성이 각 정당의 선거연합의 연대를 굳건하게 묶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정당을 주축으로 하여 이념이 매개되면서 각 정치세력의 요소가 정렬되고 양대 정당의 선거연합은 팽팽한 배열구도를 이룬다는 것이다. 특히 성별의 선거연합 추가는 본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한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모델4는 이념을 중심으로 지역, 세대, 성별 등 3자의 중층적 관계가 반영된 상호작용 변수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호남-진보-4050세대의 민주당 선거연합과 영남-보수-60대이상의 국민의힘 선거연합 모두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여주고 있는 바, 전술한 이론적 논의를 잘 지지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3자의 중첩적 관계의 결과는 지역-이념-세대가 한국의 정당 선거연합의 강도와 밀도, 지지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지역-이념-성별의 중첩적 관계에서 영남-보수-2030남성의 국민의힘 선거연합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호남-진보-2030여성의 민주당 선거연합 변수는 사례 수

의 문제로 모델에서 생략되었다.

정리하면, 최근 한국 정치는 정당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이념, 세대, 성별이 연합을 이루어 팽팽한 호각지세의 경쟁을 펼치는 진영 간 세 대결을 벌이고 있고, 통계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여기에다 선거의 프레임을 결정하는 선거구도와 선거기간 중에 생산되는 이슈가 각 정당의 선거연합의 동원, 지지, 결속에 조절적 작용을 하고 있다.

〈표 7〉 정당 지지연합의 후보선택에 대한 영향력(기본모델)

	모델 1		모델 2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여성	-0.567**	0.185		
나이	0.013 <sup>†</sup>	0.008		
학력	-0.193 <sup>†</sup>	0.108	-0.132	0.109
소득	-0.038	0.049	-0.059	0.052
이념	0.433***	0.049		
정치관심	-0.250	0.183	-0.028	0.186
선거관심	0.301	0.185	0.333 <sup>†</sup>	0.195
정책/공약	0.851***	0.202	0.666***	0.204
소속정당	1.063***	0.228	1.123***	0.248
문재인정부 평가	-1.544***	0.150	-1.422***	0.148
야권단일화-강화	-0.040	0.243	-0.061	0.253
야권단일화-영향 없음	0.682**	0.228	0.596**	0.235
호남			-2.924***	0.501
영남			0.350 <sup>†</sup>	0.214
진보			-1.301***	0.237
보수			0.832***	0.216
4050			0.208	0.293
60대 이상			0.767*	0.346
2030여성			생략	
2030남성			0.835**	0.322
상수	1.104	0.940	2.402**	0.797
N	941		964	
LR Chi <sup>2</sup>	451.47***		529.62***	
Pseudo R <sup>2</sup>	0.3464		0.3965	

<sup>†</sup>p<.10, \*p<.05, \*\*p<.01, \*\*\*p<.001



〈표 8〉 변수측정

변수	측정방식
후보선택	1=윤석열, 0=이재명
여성	1=여성, 0=남성
나이	만 나이
학력	1=초등학교 졸업 혹은 이하 ~ 7=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이상
소득	한 달 가구소득 평균(1=100만원 미만 ~ 12=1,200만원 이상)
이념	0=진보 ~ 10=보수 (진보=0~4, 중도=5, 보수=6~10)
정치관심	1=전혀 없음 ~ 4=매우 많음
선거관심	1=전혀 없음 ~ 4=매우 많음
문재인정부 평가	1=매우 잘못했음 ~ 4=매우 잘했음
야권단일화-강화	1=야권 후보단일화가 투표의욕을 강화시킴, 0= 그 외나머지
야권단일화-영향 없음	1=야권 후보단일화가 투표의욕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함, 0=그외 나머지
정책/공약	후보 선택시 고려요인 1=정책/공약, 0=그외 나머지
소속정당	후보 선택시 고려요인 1=소속정당, 0=그외 나머지

〈표 9〉 정당 지지연합의 후보선택에 대한 영향력(상호작용 변수모델)

	모델 3		모델 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학력	-0.124	0.093	-0.176*	0.085
소득	0.010	0.489	-0.019	0.046
정치관심	-0.070	0.175	0.003	0.163
선거관심	0.292 <sup>†</sup>	0.182	0.199	0.171
정책/공약	0.660***	0.197	0.620***	0.186
소속정당	1.072***	0.229	1.194***	0.214
문재인정부 평가	-1.470***	0.141	-1.645***	0.135
야권단일화-강화	-0.133	0.239	-0.160	0.226
야권단일화-영향 없음	0.548*	0.223	0.504**	0.209
호남×진보	-2.837**	1.086		
영남×진보	1.154***	0.327		
진보×4050	-1.395***	0.291		
보수×60 이상	0.884***	0.254		
진보×2030여성	-1.355**	0.436		

	모델 3		모델 4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보수×2030남성	0.970**	0.373		
호남×진보×4050			-1.894 <sup>†</sup>	1.045
영남×보수×60대 이상			2.580***	0.759
호남×진보×2030여성			생략	
영남×보수×2030남성			0.200	0.711
상수	2.692***	0.691	3.570***	0.639
N	964		957	
LR Chi <sup>2</sup>	464.05***		361.14***	
Pseudo R <sup>2</sup>	0.3475		0.2747	

<sup>†</sup>p<.10, \*p<.05, \*\*p<.01, \*\*\*p<.001

## V.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정치에서 볼 수 있는 양대 진영 간의 세 대결은 거대 정당을 주축으로 지역, 이념, 세대, 성별이 결합하여 하나의 선거연합을 이룬다. 둘째, 정당의 선거연합의 각 정치세력 요소, 즉 지역, 이념, 세대, 성별은 고유의 정치적 성향의 발현을 통해 지지자들을 동원, 결속시켜 투표를 하게 한다. 셋째, 선거연합의 정치세력 요소 중 이념을 매개로 하여 다른 요소들이 중첩적으로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당과 지지자 간 동원과 지지의 연계는 더욱 공고해진다. 넷째, 선거구도와 선거 이슈는 양 진영의 정당 선거연합의 강도 및 밀도 형성에 조절적 역할을 한다. 다섯째, 최근들어 정치권은 새로운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의도적으로 분열시켜 자파 진영의 새로운 선거연합 구성요소로 포함시킨다. 최근 국민의힘은 지지와 동원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 젠더문제를 부각시켜 2030 세대의 남녀 성 대결을 격화시킨 바 있다.

특히 본 논문의 경험적 결과는 그동안 선거연구에서 제기되어 온 이념-지역-세대의 중첩성이 정당을 주축으로 하여 어떻게 선거연합을 이루는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실제 선거에서 실증적 자료를 활용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언론계와는 달리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간과해온 선거에서 성 대결이 선거연

합이라는 이론적 틀내에 수용되어 경험적 자료를 통해 성별 선거연합의 선거적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별의 선거연합 추가와 관련하여 2022년 국민의힘은 ‘이준석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의 지지 철회를 겪은 바 있다. 국민의힘 지지블록에서 젊은 남성층의 이탈은 정당의 선거연합 이론을 심화시키는데 좋은 예를 제공한다. 이념-지역-세대의 견고한 중첩성과 달리 성별(특히 젊은층)-이념의 중첩성은 왜 그렇지 않을까? 젊은층으로 대표되는 MZ세대는 실용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세대로 탈이념성이 강한 세대라 볼 수 있다. 이를 활용한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의 선거전략은 특정 성별, 즉 2030남성을 동원시키는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할 때는 지지블록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당 선거연합의 지지세력 요소들 중에서 이념과 중첩성이 보이는 요소들은 정당과 흔들리지 않는 정렬을 보이지만 성별과 같은 요소는 안정적 정렬을 위해 정당의 관련 이슈의 선점과 지속적인 동원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정치 양극화는 정파 간 서로 적대시하며 극단적 대립과 갈등을 유발시켜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과 대표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권위주의로의 회귀나 포퓰리즘 등장과 같은 민주주의 역진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정당의 선거연합은 이런 정치 양극화의 유지, 심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치의 본질이 집단 간 정체성의 경쟁에 있다고 한다면 진영 간 지지블록의 세 대결은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정당 선거연합의 구성요소들인 지역, 이념, 세대, 성별은 정당의 본질과 지지에 뼈대를 이루는 정체성의 요소들로서 일단 결속하여 연합이 형성되면 잘 변하지 않는 고유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속성으로 말미암아 정치는 더욱 비타협적이 되고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이 만연해질 가능성은 더욱 농후해진다.

정당의 선거연합에 기반한 정치경쟁은 한국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미래를 논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집단의 정체성에 기반한 정치의 본질이 변할 수 없는 속성이라고 한다면 이들 양 진영 간의 세 경쟁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방식에서 규칙과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상식과 미래를 생각하는 협력적 사고의 토대 위에 문제 해결의 정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원택, “가치와 이념 갈등”, 『한국의 사회동향 2009』, 통계개발원, 2009.
- \_\_\_\_\_, 성예진,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1호, 2018.
- 고정애, “허니문 거의 없을 수도...더더욱 통합 노력해야”,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4610#home> (검색일: 2022.02.15).
- 김만흠,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제28권 제2호, 1995.
- 김성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의 영향: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의정연구』, 제23권 제2호, 2017.
- 노환희·송정민·강원택,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12권 제1호, 2013.
- 문우진, “지역주의와 이념성향: 17대 총선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1호, 2009.
- \_\_\_\_\_, “한국 선거경쟁에 있어서 이념 갈등의 지속과 변화: 15대 대선 이후 통합자료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제3호, 2016.
- \_\_\_\_\_, “지역주의 투표의 특성과 변화: 이론적 쟁점과 경험분석”, 『의정연구』, 제23권 제1호, 2017.
- 백준기·조정관·조성대,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그리고 2002년 대통령선거”, 『국가전략』, 제9권 제4호, 2003.
- 이갑윤·박경미, “지역발전과 지역적 정당투표”, 이갑윤·이현우 편, 『한국의 정치균열 구조: 지역, 계층, 세대 및 이념』,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14.
- \_\_\_\_\_, 이현우,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현대정치연구』, 제1권 제1호, 2008.
- 윤광일, “지역주의의 변화: 1988년, 2003년 및 2016년 조사결과 비교”, 『의정연구』, 제23권 제1호, 2017.
- \_\_\_\_\_, “균열구조와 19대 대선”,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1호, 2018.
- 지병근, “호남 유권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 및 이념적 특성”,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권 제1호, 2014.
- \_\_\_\_\_, “민주화 이후 지역감정의 변화와 원인”, 『한국정당학회보』, 제14 제1호, 2015.
- 최영진, 『한국 지역주의와 정체성의 정치』,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9.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 이론』, 서울: 도서출판 오름, 1996.
- 최준영·조진만,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제3호, 2005.
- 한국갤럽, “데일리오피니언”,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77> (검색일: 2023.02.15).
- 황태연, “한국의 지역패권적 사회구조와 지역혁명의 논리”, 『정치비평』, 창간호, 1996.
- Converse, Philip E,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Press, 1964.
- Downs, Anthony,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1957.
- Inglehart, Ronald,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e, Economics,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 Klingemann, Hans-Dieter, “Measuring Ideological Conceptualisations,” In Samuel H. Barnes and Max Kaase (eds.),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1979.
- Schattschneider, Eric Elmer, *Party Government*.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1942.

【 Abstract 】

## The 20<sup>th</sup>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nd Electoral Coalitions

Young Hwan Park

This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party-led electoral coalitions on the 20<sup>th</sup>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If the nature of politics is based on the competition of group identification, power competition between parties is unavoidable. Region, ideology, generation and gender that are composed of the identity of party are aligned with parties and play a pivotal role in mobilize supporters. Using a survey of voter perception on the 202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and an exit poll for the election, the study presents the empirical results. The results show that party-led electoral coalitions have a major impact on the result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Based on this, the paper discuss the implication of party-led electoral coalitions in the days of political polarization and democratic regression.

**Key Words** : Party-led Electoral Coalition, Group Identity, Power Competition, Mobilization, The 20<sup>th</sup>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